



## 21세기를 위한 변증은?

폴 코판 | 홍병룡 옮김, 새물결플러스

지난 세기 중반 라브리(L'Abri)의 설립자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한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그의 책 『20세기 말의 교회』에서 기독교가 처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사상사에 나타난 상대주의적 흐름과 이를 복음주의 안으로 끌고 온 신학 사조에 대해 분석한 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를 버리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으며, 십자가는 그 이미지만 있을 뿐 그것이 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특정 신학 사조와 신학자들에 대한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그가 당시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고 진단한 이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20세기 말의 교회는 역사적 기독교의 분명한 교리와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를 종교적인 용어로 한정하지 말고 변증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지막으로 변증은 말이나 글만이 아닌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온전히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60년 이상 조용히 세계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 1.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필자가 폴 코판(Paul Copan)의 『카페에서 하나님께 묻다』(When God goes to Starbucks)를 소개하면서 쉐퍼와 라브리를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이 적어도 쉐퍼가 제시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길들 중 앞의 두 길인 '분명한 가르침'과 '설득력 있는 변증'을 두루 갖춘 좋은 책이기 때문이다.

코판은 원 제목인 <하나님이 스타벅스에 가신다면>의 의도처럼 이 책의 대상을 기독교인이나 회의하는 기독교인들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는 사람들의 온갖 대화가 오가는 대중문화 집합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인류의 미래 같은 거대 담론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 다양한 대화

‘분명한 가르침’과 ‘설득력 있는 변증’을 두루 갖춘 책으로, 현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소한것으로부터 거대한것으로 이동하는 문화적 변증을 시도한다.

가 오가는 장소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점이 없는 거대한 사건이나 사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코판은 마치 카페에서 잡담을 나누듯이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능숙하게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대 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현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코판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것으로 이동하는 문화적 변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2. 고전적 변증에 충실함

1부에서 코판은 진리와 실재를 설득하기 위해 개인의 이기심, 거짓말 등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상대주의의 허점을 공략하고 진리나 절대적 윤리의 필요성을 변증한다. 이는 루이스(C. S. Lewis)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의 1부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반을 두는 도덕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절대적인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전 인류의 공통된 도덕적 기반이 있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합당한 요청이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요청인 것처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절대성이며 당연함이다.

다면, 이러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한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코판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대한 시도를 이 책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가 위선과 거짓말이라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루이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코판은 루이스가 윤리에서 출발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비교하고 변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2부에서 전개한다. 코판은 2부 “세계관에 관한 물음”에서 인간은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지, 기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서 코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독선적이며 오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합당한 요청이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요청인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절대성이며 당연함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매우

변증은 기독교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복음전도 전 작업이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변증은  
자신이 믿는 신앙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며,  
창조세계에 부합하는  
바른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한다.

겸손하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분의 실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오만함, 독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코판은 현대 과학주의와 이에 영향을 받은 이신론을 경계하면서 기적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육신과 부활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코판은 “기적이란 단지 자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라고 정의한다(82쪽).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또한 코판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기적과 하나님을 동시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빈 무덤, 수많은 목격자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활과 기적,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코판은 이러한 증거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비과학

적이며 철학적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내용은 변증에 있어서 고전적인 주제들을 현대적인 옷과 코판 특유의 재치와 통찰로 풀어내는 능력이 돋보이는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진가는 책의 후반부에 있다.

### 3. 새로운 접근법(윤리적 변증)

코판은 책의 후반부에서 이전의 고전적 주제들에 대한 탄탄한 설명을 바탕으로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결혼, 이슬람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동시에 이것들은 종교를 넘어 서구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그래서 각자의 진영과 위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윤리적 발언과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독교의 성실한 답변은 그 자체로 변증의 도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변증이 21세기에 맞이한 새로운 국면이다.

과거 기독교 변증은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등의 철학적 변증이 주를 이루었다. 위에서 고전적 변증이라고 했던 기적, 신의 존재, 종교적 경험 등이 그러하며, 윤리적 문제로 보이는 고통과 악의 문제도 실제로는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 변증에 가깝다. 현대에 비해 과거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기독교 변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윤리의 절대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윤리가 급속도로 상대화되었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자리하

고 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서구 사회는 테러가 종교 간의 배타적인 대립과 포교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포교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 그리고 이들의 경전인 성경과 코란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판은 위와 같은 이슈를 이 시대를 위한 기독교 변증을 위한 수단으로 이 책에 담았다.

#### 4. 변증이 답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변증은 신자, 비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변증이 오로지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준다. 변증은 문학,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문화적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언어로 기독교 진리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변증이 직접적으로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증은 기독교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복음전도 전(pre-evangelism) 작업이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변증은 자신이 믿는 신앙이 사적인(privatization) 것이 아니라 공적(public)이며, 창조세계에 부합하는 바른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변증을 단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변증은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기독교 진리를 진리로 확증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뉴욕 리디머교회(Redeemer Church)의 팀 켈러(Tim Keller)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Center Church>에서 목사의 설교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장).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변증을 담은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웨퍼가 20세기 후반에 교회로 향해 주문한 바른 교리와 변증이라는 해법과도 일치한다. 웨퍼는 이를 위해 1984년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당시의 윤리적 이슈였던 낙태와 환경문제를 붙잡고 기독교를 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코판은 당대의 윤리적 이슈인 동성애와 테러, 이슬람을 통해 설득력 있는 기독교 변증을 그의 책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의 시도는 매우 설득력 있으며, 교리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호감을 사려는 시도를 배제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분명한 가르침'과 '적합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붙잡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변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글 | 이춘성 목사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